

알레니의 세계지리서 「직방외기(職方外紀)」의 지리 지식의 구성 및 기술*

서태열**

Aleni's World Geography *Chih-fang Wai-chi* (「職方外紀」) and It's Organization and Description of Geographical Knowledge*

Tae-Yeol Seo**

요약 : 이 연구는 최초의 한역 세계지리서인 「직방외기(職方外紀)」에서 다루고 있는 지리적 지식의 원천, 그리고 해당 시대에서의 지리적 지식의 구성과 기술에 있어서의 특성을, 저자인 알레니의 삶과 활동과정, 그리고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직방외기(職方外紀)」의 저자인 알레니는 서래공자로 불리우는 제주이트(예수회) 중국 전도의 4성인 중의 한 명이다. 이 책은 서양의 지리적 지식을 반영한 한문으로 쓰여진 최초의 세계지리서로서, 중국중심의 화이적 세계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서양선교사가 처음으로 서구의 세계지리적 지식을 아시아에 전달한 이 책은, 동양과 서양의 대인접촉에 의한 만남이 아니라, 구조화된 지식체가 담긴 책을 통하여 최초로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 이루어진 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주요어 : 알레니, 세계지리, 「직방외기(職方外紀)」, 제주이트, 중국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illuminate the origin, knowledge structure,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al description in *Chih-fang Wai-chi* (「職方外紀」) in terms of life, activities and it's generational background of author Aleni who are called "Confucious from West". *Chih-fang Wai-chi* (「職方外紀」) is the first world geography book in chinese character with geographical knowledge. This book cast great shock on Chinese view on the world which characteristics are china-oriented and center(華)-periphery(異) dichotomy. This book in which western missionaries provide Asia firstly with world geography knowledge is not a personal meeting between East and West, rather a meeting between East and West through book which contains the structural body of world knowledge.

Key Words : Aleni, World geography, *Chih-fang Wai-chi* (「職方外紀」), Jejuite, China

I. 서론

「직방외기(職方外紀)」는 17세기 중국에 도래한 예수회 선교사인 알레니(艾儒略)에 의해 만들어진 책이다. 만약 리치의 세계지도가 중국전도와 동서간의 지식교류의 선구적인 성취였다면, 알레니의 「직방외기(職方外紀)」와 「서방문답(西方答問)」은 진정한 시금석이었다.

그것은 리치와 알레니 이후 제주이트 선교사들의 저술 및 출판들이 17세기 후반에 가서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서방요기(西方要紀)」와 「곤여도설(坤輿圖說)」과 같은 서적의 형태로 출판되기 때문이다. 약 30년의 간격이 있는 후, 알레니의 작업들의 내용과 스타일에 대한 개선과 응축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선교사업의 전략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는 2014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University, tyseo@korea.ac.kr)

중국 기독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마테오 리치가 상당한 시간과 노고를 수반하는 일련의 세계지도를 제작한 것도 선교사업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초창기 선교의 기반을 닦는 과정에서 리치는 자명종 시계나 성화 등과 함께 중국인들이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진기한 물건들을 선사함으로써 중국인 유력자들의 도움, 관심과 호의를 확보하려 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국인들이 세계지도에 보인 관심과 반응으로 볼 때, 세계지도가 중국 선교에 매우 유용한 도구임을 간파하였다. 중국 상류층 지식인들은 세계전도에 놀랐으며, 이 지도를 중국어로 주를 달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 지식인들이 유럽의 세계지도를 여러 차례 모사하는 등의 분위기로 볼 때, 세계지도는 그들의 관심을 끌고 환심을 살 수 있는 훌륭한 선물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이후에 만력제에게 바친 공물에서도 세계지도가 포함되어 현상되었다.

이학로(2011:217)는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天主實意)」가 사대부에게 기독교 교리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방법의 하나였다면, 「직방외기(職方外紀)」는 천문학과 지리학을 소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중국 사대부들에게 침투시키려는 전략의 일부였다고 평가하였다. 즉 「직방외기(職方外紀)」는 세계지리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의해 창조된 세계라는 인식과 더 이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직방외기(職方外紀)」는 마테오 리치에 의해 확립된 기독교의 적응주의 선교 전략의 중요한 상징적 저작물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세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천문학과 지리학 그리고 인문사회의 다양한 특성들을 세계 여러 지역별로 설명한 저서였다고 하겠다(이학로, 2011).

알레니는 마테오 리치와 시기상으로는 같이 일을 한 적은 없지만, 그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인물이다. 마테오 리치는 16권의 책을 써서 “서방에서 온 위대한 공자(유학자)”로 칭송을 받았으며, 알레니는 수많은 책을 중국어로 써서 “서방에서 온 공자”라는 칭송을 얻었다(Xu, 1997:400).

제수이트의 중국 전도과정에서 세계지도 및 지지분야에서 많은 새로운 업적들이 연이어 나타났지만, 그 내용과 영향력의 측면에서 1623년 알레니의 「직방외기(職方外紀)」와 만국전도 만큼 큰 것이 없는데, 그것은 「직방

외기(職方外紀)」는 종래에 리치의 지도에 간략하게만 서술된 세계 지리 부분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당대 유럽 세계 지리학의 전모를 최초로 소개한 기념비적인 서술이 었기 때문이다(임종태, 2002:12). 좀 더 나아가 「직방외기(職方外紀)」는 여러 총서류에 실려 중국과 조선 지식인들에게 널리 읽혀졌으므로, 리치의 지도와 더불어 동양의 지식 사회에 미친 영향도 컸다.

국내에서 알레니에 대한 연구는 이원순(1991)의 연구를 시작으로, 임종태(2003), 줄리오 알레니(천기철 역, 2005)의 것이 있는데, 이들에 의해 사상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매우 심도있는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알레니의 직방외기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서도 당대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넘은 세계 지역들을 다룬 최초의 세계지리서라고 할 수 있으나, 그동안 국내 지리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지도학분야에서 아주 적은 분량으로 언급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최근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 등 세계지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전되어 있는 만큼, 「직방외기(職方外紀)」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도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최초의 한역 세계지리서인 「직방외기(職方外紀)」에서 다루고 있는 지리적 지식의 기원, 그리고 지리적 지식의 구성과 기술에 있어서의 특성을, 저자인 알레니의 삶과 활동과정, 그리고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밝히고자 한다.

II. 알레니의 지리적 지식의 획득과정과 그 배경

1. 알레니의 성장배경과 학문적 배경

16~17세기를 살았던, 알레니(1582~1649)는 당시 유럽에서 El Greco, Niguel de Cervantes, SJ, Francis Bacon, William Shakespeare, Galileo Galilei, Johann Kepler, Peter Paul Rubens, René Descartes 등과 같은 저명한 인물들과 동시대의 인물이다.

알레니의 가족은 Brescia의 귀족가문이었으나 명문가는 아니어서 알레니 일가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 알레니의 성장과정과 학문적 성숙의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와 연구가 축적되었으나, Xu(1997:375-376)의 것이 가장 광범위하다. 그의 것에 다른 연구자들의 언급을

표 1. 알레니의 연보

1582년(만력 9년)	알레니(Aleni)는 Brescia에서 태어남.
1597년	15세 베니스의 St. Anthony 대학에 입학(수학, 철학 공부를 위해), 2년 문학 공부.
1600년	18세 때, the Society of Jesus에 입교.
1600년	11월 1일에 베니스 지방 수사 범위를 넘어 활동.
1601년	전도수사 과정에 29명 선택받음. 알레니의 수사과정 1년차가 끝나갈 무렵에 Padua로 이사.
1603년	21세때 Padua 대학에 입학.
1605년	볼로냐에 the college of Aristocrat 단과대학에서 인문학 교수.
1607년	12월까지 머무, 이후 신학연구를 위해 로마로 감.
1607년	인도로 보내줄 것을 두 번째 요청.
1608년	마테오 리치의 전도 경험에 영향을 받고 영감을 받음. 8월 30일 동인도로 갈 선교사로 선발됨.
1609년	2월 23일에 28세의 나이로 24명의 제주이트와 함께 리스본을 향함. 동방으로 떠나는 “Nossa Senhora da Piedade”호에 승선.
1610년 말	(만력 38년)에 인도의 고아 거쳐 마카오 도착(향해 중 동료 7명 사망).
1611년	알레니는 Pieter van Spiere와 함께 중국으로 들어가는 시도 실패. Francesco Sambiasi와 함께 마카오에 남아 중국어와 중국 책 공부.
1613년	van Spiere, Sambiasi, 그리고 de Semedo 와 함께 중국에 들어감. 난창, 난징과 항저우에 들어감, 거기에서 카이펑(헝난, Henan)으로 보내짐. 베이징에 도해 서광계(Xu Guangqi)를 만난 후, 함께 상하이와 항저우로 돌아옴.
1614년	난징, Jiangxi(지양시), Huguang(후광), Sichuan, Zhejiang 그리고 복건(Fujian)의 6개 지역 전도사업 책임자가 됨. 죽을 때까지 지위 유지.
1615~1617년	종교적 박해기간 동안, 다른 제주이트와 함께 항저우의 양정균의 집에 피신양의 지도아래 중국어와 중국 인문학을 집중 공부. 양정균이 알레니를 가장 총애했. 3년 학습 후 중국어로 명문 작성.
1619년	서광계의 소개로 항저우의 고위 관료들 알게됨. Ma Chenxiu(다른 이름은 Sanzhi, 기독교명은 Peter)는 서구학문을 가르쳐달라 고 요청하였으며, 알레니는 1620년에 항저우까지 동행. 265명의 개종자들 안수.
1621년	알레니는 Jiangzhou(산시, Shanxi)에 교회 설립. 종교적 박해 다시 시작. 알레니는 Ma를 만나기 위해 Jiangzhou 떠나 Chenzhou(Henan) 향함. 연말 항저우 도착, 1624년 말까지 머무. 「직방외기(職方外紀)」라는 세계지리, 서학법과 같은 서구적 학습에 대한 종합적 기술 등 저술.
1624년	Ye Xianggao가 복건가는 길에 항저우를 지나가게 되어 만남, 초청을 받음.
1624년	12월 복건 도착, 전도 시작.
1647년	만주족 복건 침략. Emmanuel Diaz, Jr.와 함께 Yangping(오늘날 Nanping 시)로 피신.
1649년	8월 3일 68세의 나이로 사망. 유해는 제주이트 공동묘지가 있는 Fuzhou의 북문바깥의 Shizi shan (Mountain of the Cross, 십자가 산)에 묻힘.

첨부하면, 알레니의 연보는 대략 표 1과 같다.

알레니는 일찍부터 이탈리아의 교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였으며, 파르마 대학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600년이 지나면서 선교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Colpo(1997: 77)에 따르면, 페루에서의 그의 교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탈리아에 온 Diego de Torres신부가 파르마에 머물

면서 알레니에게, 총장이 그를 보내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기도 하였다.

알레니는 유클리드의 “Elements”를 비롯하여 지리학 등 다양한 학문들을 배워나갔으며, 또한 알레니는 인도로 가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1608년 8월 30일에 동인도로 가는 선교사에 Paolo Girolamo Cicerchia와 함께 선발되었다. 이러한 선발 결과는 알레니의 과학

에 대한 친숙성이 영향을 주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마테오 리치가 중국으로부터 과학문제에 대한 전문가인 전도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알레니 스스로가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먼 지역으로의 파견을 준비하고 그 일부가 되고자 하였으며, Clavius에 의해 10년 전에 시작되어 그 대학에 권위를 지속적으로 부여하였던 수학과 천문학을 활용하려고 하였다(Colpo, 1997:81).

그리고 그가 어떤 학문과 내용들을 준비하였는지는 그가 Magini에게 보낸 편지(1611년 1월)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이탈리아를 떠나면서, 나는 당신의 달력과 표들, 그리고 *Cosmografia*를 가지고 왔다. 이 책들은 여러 가지 경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했는데(Colpo, 1997:82), 즉 그는 천문학, 그리고 당시 cosmography라고 불리던 지리학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었다.

알레니는 Goa로 가는 도중에 그의 동료인 Cicerchia가 죽을 만큼 아픈 동안에도, 고아와 마카오 사이에 그리고 다음해에도 신학 공부를 지속했다. 1611년 여기에서 그가 관측한 두 번의 월식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Magini에게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다음과 같이 결의에 찬 행동이 매우 인상적이다.

“인도,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지역들에 대해 신부님께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당신에게 보내게 될 지도를 먼저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것들이 먼저 보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Colpo, 1997:82)

알레니는 반세기를 푸저우(福州)에서 보냈는데, 그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자세 즉 지역문화나 중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 등이 많은 지역 문인들을 얻도록 해주었으며, 발리야노와 리치의 프로그램 위에서 충실히 이행했다(Lazzarotto, 1997:12). 이렇게 하여 알레니는 중국에서 전도를 40년 동안(1610~1649) 동안이나 하여 “서방에서 온 공자(西來孔子, Confucius of the West)”라는 칭송을 받았으며, Ye Xianggao는 시를 지어 칭송했다. 알레니는 초기에 중국에 온 제주이트 들 중에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중의 한 명이며, 저술은 중국어로 된 것을 비롯하여, 총 28개 정도에 이른다(Xu, 1997:376).



그림 1. 알레니 초상

출처 : Lippiello and Malek, 1997.

2 제주이트의 지리학과 아시아 미션

원나라 몽골 지배 하에서도 서양의 기독교 선교활동은 이루어졌다. 원 왕조 동안 200명이 넘는 프란체스코파 선교사들이 동방으로 보내졌으며, 그 중 매우 소수만 중국에 도달했다. Corvino라는 선교사는 북경에서 34년(1294~1328)을 보냈는데, 일생동안 6천명을 개종시켰고, 그는 대주교로서 당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였던 광저우에 3명의 주교들을 파견했다.

대항해시대를 지나면서, 아시아로 가장 먼저 진출한 국가 중의 하나가 포르투갈이었다. 포르투갈의 Albuquerque 제독이 1511년 당시 동서교역의 중심지인 말라카를 점령했다. 1514년 최초의 포르투갈 선박이 오늘날의 마카오에 무역거점을 만드는 것을 허락받았고 유럽인들의 중국으로의 교두보가 되었다(Corradini, 1997:37). 이러한 연결은 다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고리형의 거대한 해양무역로의 하나를 구성하였다.

동아시아에서의 유럽인들의 도래는 정복, 교역, 선교로의 길을 열었다. 그들은 가톨릭 선교로의 길을 열고, 그들의 존재는 중국인과 유럽인들의 문화적 생활뿐만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수준에서 동서교역, 대륙 교역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유럽 무역인들과 선교사들과 함께 당시 발견된 옥수수, 감자, 땅콩 같은 아메리카의 식료품들이 중국으로 들어왔으며(Corradini, 1997:38), 지구상의 동서무역, 대륙 간 교류와 교역을 촉진하였다.

유럽 내부를 보면, 지리상의 발견과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1540년에 제주이트 파가 창설되었지만, 16세기 초부터 30년 전쟁이 정점에 달하는 등 수많은 갈등들이 유럽에서 표출되고 있었다.

가장 활발한 아시아 전도를 전개한 제주이트의 중국 전도의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초기의 아시아 선교의 중심인물로 Xavier, Valignano 등이 활동을 하였으며, 이어서 Ruggeri, Ricci가 아시아 전도사업에 투입되었다.

Francis Xavier(1509~1552)는 일본에서 수년을 보내면서 일본에 기독교의 진실을 확신시키려면 중국을 먼저 전도할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중국과 일본에서의 전도의 방법은 같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에 보내질 전도사는 매우 조심스럽게 선택되고 학습과 덕성에서 자격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Xavier 신부가 이러한 전도의 이상적 인물로 생각한 그런 형태의 사람이 리치였다. 리치는 실제로 중국 전도의 창립자로 여겨지고, 학식이 있고 덕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대단한 매력과 중국 관습에 대한 대단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었다(Chan, 1988:163).

Xavier에 이어서 중국에 온, Alessandro Valignano(1539~1606)는 마카오에서의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지나치게 유럽 중심적이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그래서 그는 현지화 전략으로 중국인과 중국어를 강조하였다. 그는 먼저 Michele Ruggeri(1543~1607)를 그리고 이후에 마테오 리치(1552~1610)를 보냈으며, 이 두 사람은 인도에 있었는데 마카오로 와서 중국어를 읽고 쓰고 말하기를 배우도록 명령하였다. 당시에 비기독교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선교에 대한 접근은 “백지상태 접근”을 하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문화와 지식을 가진 경우에는 적응주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Valignano는 후자의 접근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중국에서 제주이트들은 그들의 전도의 초기이래로, 중국 제국의 지리적 경계선을 그리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였으며, 중국에서 제주이트 지도학자들은 지도의 묘사적 질과 시각적 접근가능성으로부터 나오는 이점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Foss, 1988:209). 그들이 축적한 지도학적 자료들은 세계의 대륙들 간의 관계에 대한 중국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또 가르치는데 도움을 주었다. 전도용 지도는 근대 지도학에서 중국을 제자리에 위치시켰다. 제주이트들의 지도학적 노력들은

중국이라는 방대한 제국 전체에 걸쳐서 복음전도를 위한 작업들을 돕는 보다 직접적인 전도 상의 요구들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중국 제주이트 전도가 18세기 마지막 단계에서의 사회적 압력을 받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지도 만들기는 제주이트 신부들과 그들의 중국 동료들, 기독교도들 그리고 비기독교도들 사이에서도 협력적인 작업으로 여겨졌다.

포르투갈 왕실의 후원 때문에, 아시아에 파견된 많은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왕이 1290년에 창립한 University of Coimbra¹⁾의 학생이었다(Chan, 1997:465). 14세기에 코임브라 대학은 문화적 중심으로서 천문학의 연구에 전념하였으며, 따라서 포르투갈에 명성을 안겨준 지리상의 발견들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²⁾ 15세기에 신학은 학교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왔으며, 1537년에 한 교육과정 개혁을 단행하여, 코임브라 대학을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유명한 대학가운데 하나로 만들었다. 이들 교수 중 한 명이 뛰어난 포르투갈 인이며 외국학자이며 코임브라 대학의 형이상학 교수인 Pedro Nuñez가 있었다. 그는 포르투갈령 인도의 Goa의 감독관이었으며, 1529년 포르투갈로 돌아와 왕립 우주지학자(cosmographer)가 되었다. 1544년에서 1562년까지 그는 코임브라의 수학 교수였고, 천문학, 항해, 기하학 그리고 지도의 도법에 대한 훌륭한 글들을 써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새로운 발견들에 대한 앞서가는 권위자였다. 초기 포르투갈의 항해에 있어서 수학적 도구들에 대한 지식은 Nuñez의 덕이었고, Nuñez의 학생들 가운데 한명이 유명한 제주이트 수학자인 Clavius로 잘 알려진 Christoph Calu이다. 한편, 1559년에 Evora 대학³⁾이 창립되었으며(Archbishop 대주교 Dom Henrique에 의해) 18세기 중엽까지 북경의 제국 천문대에서 일한 포르투갈 제주이트들의 다수는 Evora 대학 출신 학생이었다(Chan, 1997:465~466).

한편, 예수회 선교사들은 마테오 리치의 적응주의 선교 전략에 따라 수학, 기하학, 천문학, 지리학, 종교와 철학, 의학, 역사 등을 깊이 연구하였다. 자명종, 망원경과 프리즘은 선교사들의 중요한 선교수단이 되었다. 지리를 담은 지도의 제작과 일식과 월식을 예측하는 천문학 등에 대한 소개는 중국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제주이트 지도학의 전통은 스토리텔링에 따르면 클라이막스에 이른다. 중국 제주이트 지도 작성의 가장 고점은 중국 제국 전체에 걸친 실질적 측량에 근거한

지도집의 생산, 즉 18세기 초에 강희제의 지원을 받은 작업이다. 제주이트 전도사들은 17, 18세기에 전세계에 걸쳐 흩어져있었으며, 어떤 기관의 사람들보다도 지리적 정보를 획득하는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유럽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에게 그들의 여행과 관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보냈으며, 따라서 위대한 발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지도를 통해서 지리학이라는 과학에 공헌하였다(Chan, 1997:468).

3. 중국의 지도학과 서양의 지도학

중국의 지도학은 朱思本(1273~1337)이 그의 지도인 「여지도(輿地圖)」를 만들어 1311~12년간에 인쇄하였던 원나라 때 가장 최정상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지도집은 원래의 형태대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볼품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羅洪先(1504~1564)은 주원 원천으로서 주사본의 작업에 의존하면서 그의 이전의 지리적 작업을 종합하여 걸작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1540년경에 만들어진 「광여도(廣輿圖)」이다. 1540년에 만들어져 1555년에 인쇄되었다. 이 지도집은 1555년에 처음으로 인쇄되었는데, 이를 마테오 리치(1552~1610)가 중국 제국으로 들어오기 28년 전의 일이다.

제주이트가 들어오면서, 유럽의 지리적 작업들이 중국으로 도입되었다. 16세기말에 전도를 위한 최초의 시기 이래, 제주이트 과학자 겸 전도사들은 그들이 애를 쓰

고 있는 땅의 지리를 이해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그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지도를 만들었고, 관심있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던 중국인들 위해 유럽의 지도화 작업에 대한 지식을 번역했다(Foss, 1988:210-211).

중국의 지도는 1584년에 Abraham Ortelius(1527~1598)가 1584년에 만든 *Theatrum Orbis Tettarum* 지도집 안에 출판되었다. 1584년보다 그 전에 중국에 도착한 리치는 유럽식의 세계지도의 중국 버전을 만들어냈다. 리치가 만든 최초의 중국 지도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의 저작에서 그는 나홍선의 「광여도(廣輿圖)」와 또 다른 중국 지도인 1555년에 재인쇄된 「고금형승지도(古今形勝之圖)」의 판본 등 다양한 중국 자료들이 참고되었다. 그리고 그는 또한 Ortelius와 Gerard Mercator의 작품들을 함께 참조하였다.

리치는 그의 세계지도를 계속 개선해나갔다. 그의 1602년 세계지도의 확대된 버전은 지도학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 되었다. 리치는 모든 용어와 지명을 중국어로 번역하였으며, 중국을 지도의 중앙에 놓고 “중앙 왕국”이라는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장소에 대한 자부심을 주려고 하였다. 지도는 그의 작업에서 중국인들에게 흥미를 끄는 중요한 도구였으며, 그것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서문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술들은 주요한 선전 도구로서 역할을 했다. 그 스스로가 그의 지도 수천 매에 달하는 복사본을 만들었으며, 그의 감독 하에서, 다른 것들은 표절해서 해적판으로서 만들어졌다. 실제로 그

표 2. 동양과 서양의 중요 지리적 성취

1136년	화이도 → 인도의 정보가 들어감
1178년	영외대답(주거비)
1225년	제번지(조여팔)
1402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1507년	발트제밀러 Waldseemiller 세계지도 → 아메리카 등장
1526년	Manahus 세계지도(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동반구로, 북미와 남미를 서반구로)
1544년	윈스터의 cosmography
1569년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
1570년	Ortelius 세계지도 → 1584년까지 34판, 16세기 가장 보편적 유럽지도 모든 유럽어로 번역
1567년	아시아지도
1600년	산해여지전도 → 소동양, 대동양, 소서양, 대서양의 구분과 일본, 아프리카
1602년	곤여만국전도 → 아프리카, 유럽이 한국에 등장
1603년	양의현람도
1616년	장섭 동서양고
1623년	영애승람
1623년	「직방외기(職方外紀)」

의 세계지도는 그의 사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아시아에서 꽤 영향력이 컸다.

제주이트들은 중국인을 위한 세계지도를 계속 만들어냈다. 유럽인의 지도의 번역 및 정련과 함께 중국적 원천에서 나온 정보들을 결합하였다. 17세기에 중국 제주이트의 강조점은 점점 중국인들을 위한 유럽과 세계의 해석에서부터 유럽인들을 위한 동아시아에 대한 지리적 탐험과 지도화로 점점 교체되었다.

제주이트는 중국인들에게 새로운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그들은 신선하고 보다 정확한 중국에 대한 묘사를 유럽인들에게 돌려주었으며, 사실, 17세기·18세기에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의 지도학적, 지리적 이미지는 거의 전적으로 제주이트의 정보에서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Foss, 1988:214~216).

이와 반대로 제주이트는 중국의 지리적 전통에도 많이 의존하였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의 중국적 원천에 수많은 제주이트 중국 지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속단하지만, Kenneth Ch'en은 리치에 의해 그려진 많은 원천들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Foss, 1988:216). 제주이트 선교사들이 17세기 후반에 많이 들어오며, 수학, 지리 등에 숙달되어 있었다. 이는 삼각측량지식에 중요하였고, 그들의 도래가 청나라의 영토가 확장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청나라가 제국의 종합 지도를 작성하려는 관점과 연관된다(Foss, 1988:36).

III. 「직방외기(職方外紀)」의 지리 지식의 구성 및 기술

1. 「직방외기(職方外紀)」 저술의 배경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天主實義)」가 사대부에게 기독교 교리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방법의 하나였다면, 「직방외기(職方外紀)」는 천문학과 지리학을 소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중국 사대부들에게 침투시키려는 전략의 하나였으며, 마테오 리치에 의해 확립된 기독교의 적응주의 선교 전략의 중요한 상징적 저작물이었다(이학로, 2011:228).

세계지도 및 지지분야에서 새로운 업적들이 연이어 나타났지만, 그 내용과 영향의 측면에서 1623년 알레니의 「직방외기(職方外紀)」와 만국전도를 따를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특히 「직방외기(職方外紀)」는 리치의 지도에 간략하게만 서술된 세계 지리 부분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당대 유럽 세계 지리학의 전모를 최초로 소개한 기념비적인 저술이 되었고, 지식 사회에 미친 영향 면에서도 「직방외기(職方外紀)」는 리치의 지도를 비롯한 다른 어떤 업적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이었다(임종태, 2002:12).

알레니가 세계지리서를 저술한 동기의 하나는 유럽 기독교 문명을 소개하려는 것이었다. 내용면에서 유럽은 상세하게 다루어지는데, 서양의 학문과 교육 체계를 소개한 「서학범(西學凡)」과 서양의 정치, 사회, 문화, 등 서양사회 전반을 소개하여 우호적 이미지를 심으려한 「서방답문(西方答問)」이 하나의 세트를 이룬다. Benard Hung-kay Luk은 이 지리책이 개종한 문인들을 위한 하나의 유인책으로서, 신앙에 봉사할 지식으로서 만들어졌다고 기술하였다.

「직방외기(職方外紀)」가 저술되던 시기는 명나라 만력제 때였다. 황제가 마테오 리치 신부가 만든 세계지도인 곤여만국전도에 판토티 신부와 우르시스(Sabbathinus de Ursis, 1575~1620)신부에게 해설을 덧붙이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그 대신에 알레니 신부에게 책임을 맡겼던 것이다. 따라서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에 대한 해설서인 「직방외기(職方外紀)」의 전체가 알레니 신부의 저술은 아닌 것이다(Foss, 1988:211).

더 많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입국함으로써 중국인들의 세계지도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 1623년 알레니는 「만국전도(萬國全圖)」를 만들었고, 중국인 학자들의 도움으로 「직방외기(職方外紀)」를 편찬했다. 서문에 의하면 리치의 세계지도가 널리 알려진 후, 서양의 세계지도를 중국어로 번역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판토티(Diego de Pantoja, 1571~1618)가 중국의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글로 엮었는데, 이것이 중국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 자료를 기초로 더욱 확장하여 알레니가 편찬한 것이 「직방외기(職方外紀)」이다.

알레니와 양정균은 그들의 「직방외기(職方外紀)」가 빠르게 뒤를 이었고, 이후에는 이지조가 편집하여 1628년 천학초함의 첫 선집에 포함되었다. 알레니의 「직방외기(職方外紀)」는 Pantoja와 Ursis가 명나라 궁정을 위해 준비하였던 리치의 1601년판 *Mappa Mundi*에 대한 주석

으로부터 나왔다. 마테오 리치의 적응성 선교전략의 성과의 하나가 「직방외기(職方外紀)」이다.

Chan(1997:470)에 따르면, 알레니의 저술에서 과학적 저술은 27개 중에서 5개뿐이다. 즉 「기하요법(幾何要法)」, 「직방외기(職方外紀)」, 「성학추술(性學攬述)」, 「서방답문(西方答問)」, 「서학범(西學凡)」이다. 1637년에 지어진 「서방답문(西方答問)」을 제외하고는 다른 책들은 그가 1625년 복건성에 가기 전에 저술되었다.⁴⁾

李之藻의 편찬에 의한 「천학초함(天學初函)」은 종교 관계 9편 과학관계 10편 총 19편(52권)을 총집하여, 천주교 교리관계서를 이편(理篇), 그 밖의 서양학술관계서를 기편(器編)으로 나누어 편집되었다. 이편의 첫 번째로 「서학범(西學凡)」을 마지막 9번째에 「직방외기(職方外紀)」를 배치하고 있다. 즉 이지조가 찬한 천학초함의 이편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책은 모두 알레니가 쓴 책이며, 모두 간략하나마 서양의 교육제도를 논술하고 교육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서 서양 교육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양교육에 대한 최초의 이해가 명말 청조의 중국 지식층에 전류되었다(이원순, 1991:205). 천학초함에 실린 52권은 청 건륭제 당시 편찬된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수록되었는데, 理篇의 9종 가운데 「직방외기(職方外紀)」를 제외한 8종은 사고전서에 수록되지 않았다.

「직방외기(職方外紀)」에 대하여 Bernard Hung-kay Luk은 이 책에 대한 학식있고 재미있는 평가를 하였다. 이 책은 중국에서 최초로 세계지리에 대한 첫 번째 책이다. 이는 중국과 일본 모두에서 지리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의 서문에 따르면, 이지조는 Diego de Pantoja와 Subatino de Ursis 모두가 만력제로부터 마테오 리치가 황제에 헌상한 지도에 대한 설명을 만들 것을 명령을 받았다고 말해준다. 그러나 그들 모두 죽었을 때, 그 일은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다. 알레니는 나중에 그 자신의 언급들을 추가함으로써 완성시켰다(Chan, 1997:472).

「직방외기(職方外紀)」의 서문에는 양정균이 특히 어떤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양학자들은 종종 그들의 청중에게 신에게 인도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에 도움을 주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기록과 언급을 하였다. 이와 같이 「직방외기(職方外紀)」는 이러한 스타일로 쓰여졌으며, 청각을 즐겁게해주며 독자들의 마음을 일깨우는 의도를 가지고 보도록 해주었다. 이 책의 언어는 단순하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Yang은 이 책을 피상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여행기로 볼 수 있을 지도 모르나, 대화하는 주체들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을 준다고 결론을 맺었다.

제주이트들은 중국인을 위한 세계지도를 계속 만들어냈다. 유럽인의 지도의 번역과 정련과 함께 중국적 원천에서 나온 정보들을 결합하였다(Foss, 1988:211). 그리고 제주이트들은 중국인을 위한 세계지도를 계속 만들어냈다. 유럽인의 지도의 번역과 정련과 함께 중국적 원천에서 나온 정보들을 결합하였다. 「직방외기(職方外紀)」는 19세기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Chan, 1997:477). 역사가이자 지리학자인 魏源(Wei Yuan)은 「해국도지(海國圖志)」(Hai-kuo t'u-chih)의 서문에서 그것을 표시하였으며, 외국지리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들은 만력제시대의 중반부터 유럽에 대해서는 곤여도설과 알레니의 「직방외기(職方外紀)」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다.

양정균의 서문에서 그는 알레니의 프로젝트에 대해 전적으로 응원했다. 그는 알레니가 그의 책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지식들을 사라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나에게 10년만 주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Nicolas Trigault의 노력을 통하여 약 7,000여 권의 책들이 유럽에서 중국으로 보내진 것을 언급하고 있다.⁵⁾ 이 거대한 작업이 실현되기 전에 양정균과 알레니는 죽었다(Chan, 1997:478).

2 「직방외기(職方外紀)」의 지식과 구성, 기술

「직방외기(職方⁶⁾外紀)」는 세계 인문지리서의 성격을 띠운 것으로 4매의 세계 각분도(아세아도, 구라파도, 리미아도, 아묵리가도)를 가진 5권으로 된 한역 세계지리서이다(이원순, 1969:207). 알레니는 이탈리아인으로 약 40여 년간(1610~1649) 전교활동에 종사하여 25~27종의 저서를 저술하였으며, 가장 대표적인 서적인 「서학범(西學凡)」과 「직방외기(職方外紀)」이다(이원순, 1991:207). 천학초함에 실린 「직방외기(職方外紀)」에는 권두에 “각 직방외기서(刻職方外紀序)”가 실려있는데, “天啓癸卯,…”으로 보아 명 희종 3년(AD 1623년), 즉 조간 당시의 글임을 알 수 있다.

본문에 앞서서 서문들이 있는데 그 내용과 작성자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刻職方外紀序 - 浙西 李之藻

職方外紀 序 - 泌園居士 楊廷筠 識

職方外紀 小言 - 海虞 瞿式穀 識

錢唐 許胥臣 識

職方外紀 自序 - 西海 艾儒略 識

職方外紀 首

五大州總圖界度解 - 西海 艾儒略 增驛

東海 楊廷筠 彙記

「직방외기(職方外紀)」의 자서에서 책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즉 마테오 리치가 서방 간행의 세계지도를 중국을 중앙에 두고 한문으로 번역 개작 간행한 세계지도와 그 후 판토타 신부가 서래의 구라파지도의 번역 간행한 후 또한 도설을 번역하였으나 그것이 미경각 본인 채 내려왔음에 그 자신이 구고에다 서래 소유의 자료를 운용하여 이를 증보하여 「직방외기(職方外紀)」 1편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東海 楊廷筠 彙記라고 하여 알레니의 원고를 彙記(부류를 나누어서 기록하다)하였음을 표시하고 있다. 이 까닭에 「직방외기(職方外紀)」 首에 서해 애유락 증역이라고 적은 것이다(이원순, 1969:208).

알레니가 직접 쓴 서문의 중요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물주가 우리 인류를 세상에 살게 한 것은 그들을 큰 뜰 속에 나가게 하여 풍성한 잔치를 즐기게 하고, 또 노래하고 춤추는 기쁨을 맛보게 한 것과 같다.

造物主之生我人類于世也 如進之大庭中 令饗豐饌 又娛歌舞之樂也 嘗試仰觀天象 而有日月五星列宿之麗 則天似室廬 列象似琰寶之飾垣壁者然

.....

지난날 훌륭한 황제께서 다스려 나라가 번성하였을 때 성스러운 덕과 교화가 백성들에게 두루 젖어 들었고, 먼 곳에 있는 나라들까지 복종하여 조공하지 않음이 없었다.

나의 벗 마테오 리치(利)는 만국도지(萬國圖誌)를 가져 왔고 나의 벗 판토타(龐)는 서양에서 새긴 지도를 번역하라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보고 들은 것에 근거하여 그 책들을 번역하여 바쳤다. 그런데 왕도의 교양 있는 선비들(都人士) 가운데 이것을 즐겨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도 각본(刻本)

이 되지 않은 채 전해 오고 있다.

昔 神皇盛際 聖化翔洽 無遠弗賓 吾友利氏 齋進萬國圖誌已 而吾友龐氏 又奉絲譯西刻地圖之命 據所聞見 譯爲圖說以獻 都人士多樂道之者 但未經刻本以傳道至

...

지금의 황제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御極) 백성들의 문물(文物)은 거듭 새로워졌다. [그리고 황제께서는 서둘러 만방의 아름다운 것들을 왕성하게 모으셨다. [그래서 나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요행히 외국의 낯선 풍경들을 구경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선인들이 이룩해 놓은 훌륭한 업적들(前床)에 감탄하면서 마음속으로 흠모하였는데, 세월이 흘러 그것들이 연기처럼 사라져 가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겼다.

[그런데 우연히 좀먹은 서류 속에서 [그들이] 남겨 놓은 옛 원고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에 [나는 다시 [내게 서양에서부터 가지고 온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그것에 영역(方域)의 대강(梗概)을 모아 [이를 보충하여, 한편의 책을 완성하고, 이를 「직방외기(職方外紀)」라고 이름지었다.”

今上御極而民物重新 侵侵乎王會萬方之盛矣 儒略不敏 幸床觀光 既慕前床 誠不忍其久而煙滅也 偶從=簡 得觀所遺舊藁 乃更竊取西來所授 手輯方域梗概 爲增補以成一編 名曰職方外紀 私竊自嘔 殆不過如匠氏竹頭木屑之陳 床人芷芷藻藻之獻 優伶雜劇百戲之搬演 無當大觀 非關實學 惟用以供有識臥游之萬一 則亦或者小有補云 (천기철 역, 2005)

이와 같은 알레니 본인의 서문을 비롯하여 지인들의 서문들이 있고, 五大州總圖界度解가 나온다.

이어서 1권에서 5권에 이르는 세계지리 내용이 대략 별로 나오는데, 그 내용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券之一

亞細亞總說, 韃而韃(타타르), 回回(중앙아시아 회교도 지역), 印第亞(인도), 莫臥爾(무굴제국), 百爾西亞(페르시아), 度爾格(터키), 如德亞(유대), 則意蘭(실론), 蘇門答刺(수마트라), 瓜哇(자바), 呂宋(루손), 渤泥(보르네오), 馬路克(몰루카), 地中海諸島

券之二

歐羅巴總說, 以西把尼亞, 拂郎察(프랑스), 意大里亞

(이탈리아), 亞勒瑪尼亞(독일), 法蘭得斯(플랑드르), 波羅尼亞(폴란드), 翁加祭亞(우크라이나), 大泥亞諸國(덴마크와 주변국들), 厄勒祭亞(그리스), 莫斯科未亞(모스크바대공국), 地中海諸島, 西北海諸島

券之三

利未亞總說, 厄入多(이집트), 馬邏可(모로코), 弗沙國(튀니지), 亞非利加(리비아), 奴米弟亞(누미디아) 亞昆必域(아비시니아), 馬拿莫大巴(모노모타파), 西爾得(모리타니), 工鄂(공고), 井巴(탄자니아), 福島(카나리아섬), 聖多默島(상투메), 意勒納島(세인트헬레나), 聖老楞佐島(마다가스카르)

券之四

亞墨利加總說, 南亞墨利加(남아메리카), 露(페루), 伯西爾(브라질), 智加(칠레), 金加西蠟(카스티야), 北亞墨利加, 墨是可(멕시코), 花地(플로리다), 新拂郎察(뉴프랑스), 拔革老(뉴펀들랜드), 農地(플로리다 북부 지역), 既未蠟(앨버타), 新亞比俺(알래스카 남부 지역), 加里伏爾泥亞(캘리포니아), 西北諸蠻方(서북의 여러 오랑캐 지방), 亞墨利加諸島(아메리카의 여러 섬들), 亞墨利加總說(마젤라니카 총설)

券之五

四海總說, 海名, 海島, 海族, 海產, 海狀(바다의 모습), 海船(배), 海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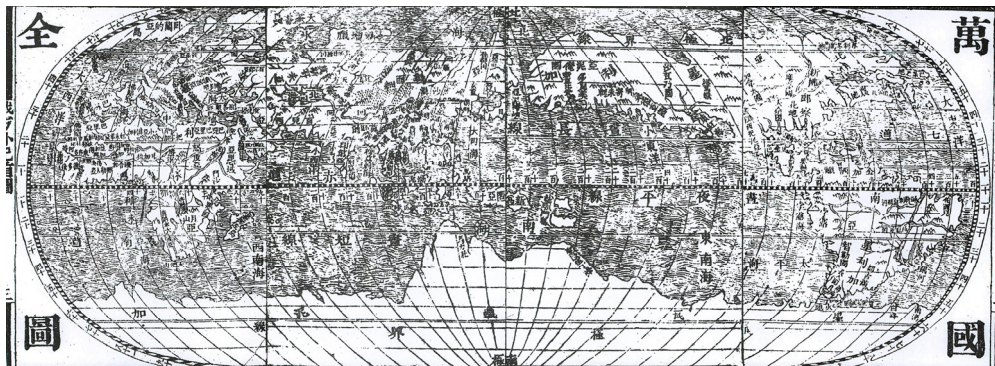
알레니의 번역은 중국인들에 있어서 세계지리에 대한

최초의 상세한 표출을 제시하였으며, 그것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를 기술하기 위해서 지방적 지식에 대한 르네상스적 전통과 프톨레미적 cosmographic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다른 부분은 대양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천학초합이나 그리고 다른 중국 선집들이 18세기에 알레니의 글들을 포함시켰다. 19세기에는 알레니의 작품들은 60년동안 세 번이나 재인쇄되었다(Elman, 2005:130).

「직방외기(職方外紀)」의 2장에서는 유럽 대륙을 다루며, 가장 긴 장이다. 아마도 탐구심이 많은 중국학자들을 위해 가장 매력적인 장일 것이다. 유럽은 알레니에게는 가장 잘 아는 장소이며, 그는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었다(Chan, 1997: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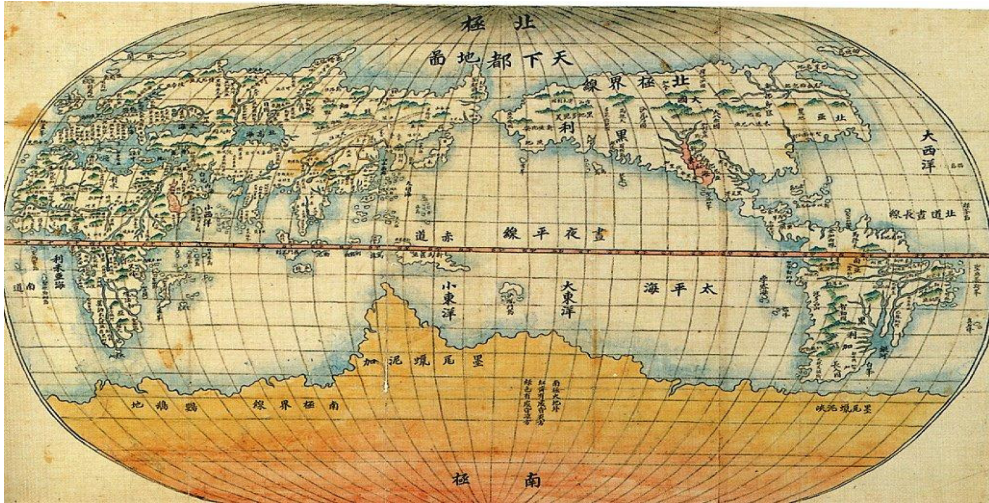
알레니는 유럽 사람들은 자선하는데 있어서 관대하다고 주장하였다. 유럽국가들 중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그들 문화의 절정기에 있었던 두 개의 가톨릭 국가였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수많은 초기 전도사들이 중국으로 건너갔던 나라이다. 그 당시 포르투갈은 스페인의 지배(1588-1640)아래에 있었다. 알레니는 수많은 제수이트들이 교육을 받은 Coimbra와 Evora의 두 개의 대학을 언급하였다. 이탈리아에 대해 말하며, 알레니는 예술, 과학 그리고 예배 등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문화적 장소로서 언급했다. 그리고 소통을 위해 2천개의 보트를 물위에서 연결하여 지은 도시인 베니스와 “학습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대학들이 번창한 도시인 볼로냐가 있었다(Chan, 1997:475).

「직방외기(職方外紀)」가 출판된 지 14년 후, 1637년에 알레니는 「서방답문(西方答問)」이라는 제목을 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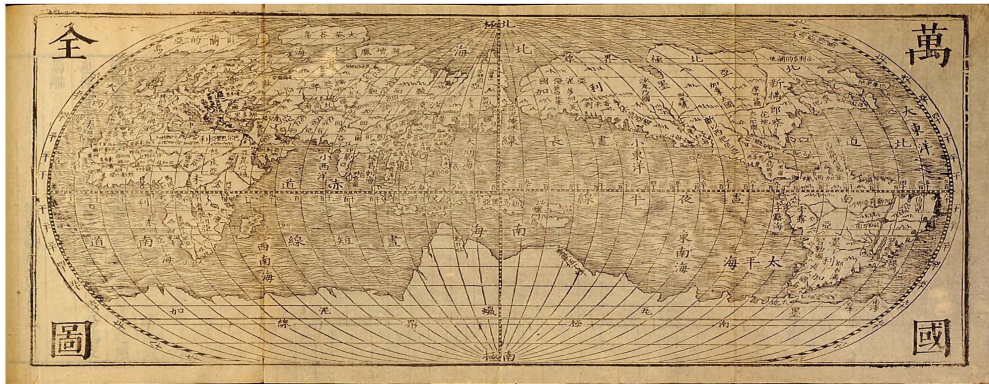


1) 「직방외기(職方外紀)」 초본에 실린 만국전도

그림 2. 만국전도



2) 1770년대 알레니 만국전도 필사본



3) 만국전도 연속 인쇄본

그림 2 만국전도(계속)

출처 : 1)은 1623년 「직방외기(職方外紀)」에 수록된 지도의 스캐닝이며, 2) 서울대 규장각 자료는 자료 해설집에서 가져왔으며(http://kyudb.snu.ac.kr/contents/content_detail.do?code=C00013&a_code=A03&b_code=&c_code=&num=13), 3)은 http://martayanlan.com/Aleni_Chinese_Atlas.htm 에서 가져옴.

유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가진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은 알레니의 전도지역인 푸저우 밖으로는 넓게 배포되지는 않았다. 알레니의 두 책은 당시에 중국인에게 이용 가능한 유럽에 대한 가장 완전한 설명이었다. 만약 리치의 세계지도가 선구적인 성취였다면, 알레니의 「직방외기(職方外紀)」와 서방답문은 진정한 시금석이었다(Chen, 1994:126). 왜냐하면 「서방요기(西方要紀)」와 「곤여도설(坤輿圖說)」이 17세기 후반에서야 출판되기 때문이다. 약 30년의 간격이 있는 후, 알레니의 작업들의 내용

과 스타일에 대한 개선과 응축이 있었다.

한편, 알레니의 「직방외기(職方外紀)」는 세계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직방외기(職方外紀)」의 명성에 따라서 이 세계지도 즉 만국전도는 별도의 지도로도 인쇄되기도 하였다. 김양선(1965)과 노정식(1984:105)에 따르면, 「만국전도(萬國全圖)」가 알레니의 「직방외기(職方外紀)」속에 실려있는 세계지도이며, 「직방외기(職方外紀)」를 출간함과 동시에 그 책속에 들어있는 만국전도를 5폭 내지 12폭의 대형 세계지도로 확대하여 출간하였다고 한다.

노정식(1984:105)에 따르면, 이 지도는 Apianus의 타원투영법에 의해서 작도하고 중심자오선을 서부 태평양의 일본에 두어 매 10°마다 경위선을 그어두고 있고, 알레니의 세계지도는 경위선과 수륙본포의 원형적 표현에 있어서 16세기 후반기의 Ortelius의 지도, Mercator의 지도, Myritus 등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다고 간주되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최초의 한역 세계지리서인 「직방외기(職方外紀)」에서 다루고 있는 지리적 지식의 원천, 그리고 해당 시대에서의 지리적 지식의 구성과 기술에 있어서의 특성을, 저자인 알레니의 삶과 활동과정, 그리고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마테오 리치 신부가 만든 세계지도인 곤여만국전도에 판토했던 신부와 우르시스(Sabbathinus de Ursis, 1575~1620) 신부에게 해설을 덧붙이도록 명나라 황제 만력제의 지시가 있었고, 이들이 마무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자 알레니가 책임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에 대한 해설서로 기획된 「직방외기(職方外紀)」의 내용 전체가 알레니 신부의 저술은 아니며, 몇 가지 원천에서부터 나온 것이었다. 1623년 알레니는 「만국전도(萬國全圖)」를 만들었고, 중국인 학자들의 도움으로 「직방외기(職方外紀)」를 편찬했다.

연구자들은 「직방외기(職方外紀)」는 마테오 리치에 의해 확립된 기독교의 적응주의 선교 전략의 중요한 상징적 저작물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세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천문학과 지리학 그리고 인문사회학의 다양한 특성들을 세계 여러 지역별로 설명한 저서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직방외기(職方外紀)」는 유럽인의 지도의 번역과 정련과 함께 중국적 원천에서 나온 정보들을 결합하기도 하여 동양과 서양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지리적 정보가 종합화되었다.

「직방외기(職方外紀)」는 19세기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수차례 발간되기도 하였다. 「직방외기(職方外紀)」는 여러 총서류에 실려 중국과 조선 지식인들에게 널리 읽혀졌으므로, 리치의 지도와 더불어 동양의 지식 사회에 미친 영향도 컸다.

註

- 1) 이 대학은 1537년에 코임브라에 영구히 자리 잡을 때까지 코임브라와 리스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였다(Chan, 1997:464). 이 대학은 대개 의료, 시민법, 교회법, 예술의 4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문법, 수사, 논리의 3학(trivium)과 4과(산수, 음악, 기하, 천문학)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 2) 1588년 성 프란시스코 Borgia가 포르투갈을 방문했을 때, 코임브라의 제주이트 하우스는 150명의 Scholastics(예수회 학생)들이 있었다. 1610년에는 포르투갈 지방에는 17개 하우스에 686명의 제주이트가 있었고, 그중 246명이 코임브라에 있었다. 이들 중 70명은 1614년에 일본 미션에 가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리치가 1597년 12월 25일에 난창에서 클라 비우스에게 보낸 편지가 있으며, 그가 천체관측의 Astrolabe를 잘 받았으며, 이 편지에서 석판 해시계를 만들었고 그가 만든 해시계 3개를 보낸다고 쓰고 있다. 15세기에 포르투갈의 해양사업의 유명한 지도자인 엔리크 왕자는 그 대학의 보호자가 되었으며, 수학 연구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 3) 1759년 Pombal에서의 박해 때까지는 제주이트들은 Evora에 중요성을 두었다. 지금 로마의 그레고리안 대학(Gregorian University)으로 알려진 것은 로올라의 성 이그나티우스(St. Ignatius)가 창립한 Collegium Romanum에 기원을 두고 있다. 1572년 교황 그레고리 13세는 Roman College를 재건축하고 많은 돈을 기부하였으며, 이후에 그를 기념하여 Gregorian University로 개명하였다. 1560년에 그 대학은 150명 이상의 제주이트가 있었다.
- 4) 1623년(천개 3년) 「직방외기(職方外紀)」가 출판되었을 때, 중국은 환관 위충헌의 영향과 권력 하에 있었고, 환관들에 반대한 고위관료들은 박해를 받거나 사임하거나 잔인한 고문으로 죽었다.
- 5) 중국 전도를 위하여 니콜라스 트리고는 7천여 권의 서양서를 마카오에 소장하였으며, 몇 년에 걸쳐서 북경으로 보냈다. 257권은 교황 요한 5세가 증정한 것이었으며, 다른 156권도 이 교황의 선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6) 職方은 영토의 범위 안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곳이 職方司로서 군무와 관련되어있

어 일반적으로 병부에 소속된다.

참고문헌

- 김동휘 역, 1995, “서방 우주론 및 기하학의 영향,” 『청대 철학』1, 서울: 신원문화사, 260-303.
- 김양선, 1965, “한국고지도연구초,” 『승대』, 10, 16-58.
- 노정식, 1968, “지봉유설에 나타난 지리학적 내용에 관한 연구,” 『대구교대 논문집』, 4, 131-147.
- 노정식, 1969, “서양지리학의 동점- 특히 한국에의 세계지도 전래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대구교대논문집』, 5, 225-255.
- 노정식, 1971, “한국의 세계지리적 저술에 관한 연구: 특히 이조시대를 중심으로,” 『대구교대논문집』, 6, 203-230.
- 박성래, 2011, “세계의 과학자들,” 『인물과학사』1, 서울: 책과함께, 271-278.
- 배진아 역, 2006, 『집안에 앉아서 세계를 발견한 남자』, 파주: 서해문집.
- 서정철, 1991, 『서양고지도와 한국』, 서울: 대원사.
- 오상학, 2011a,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인식』, 파주: 창비.
- 오상학, 2011b, “제5장 공간의 표상, 고지도,”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한국역사지리』, 서울: 푸른길, 228-287.
- 이성규, 1995, “중화사상과 민족주의,” 정문길, 최원식, 백영서, 전형준 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서울: 문학과 지성사, 107-153.
- 이원순, 1991, “朝鮮實學知識人の 漢譯西學地理書 이해,”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서울: 민음사, 11-40.
- 이재훈 역, 2010, 『고지도의 비밀』, 파주: 글항아리.
- 이창신 역, 2014, 『욕망하는 지도』,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 이학로, 2011, “서평(書評): 『직방외기(職方外紀): 17세기 예수회 신부들이 그려낸 세계』(줄리오 알레니 지음, 천기철 옮김. 일조각, 2005),” 『대구사학』, 102, 215-229.
- 임종태, 2003, “17·18세기 서양 지리학에 대한 朝鮮·中國 學人들의 해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경철, 2008, 『대항해시대-해상 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천기철 역, 2005, 『직방외기: 17세기 예수회 신부들이 그려낸 세계』, 서울: 일조각.
- Chan, A.S.J., 1997, The scientific writings of Giulio Aleni and their Context, in Lippiello, T. and Malek, R., eds., “Scholar from the West”: Giulio Aleni S.J. (1582-1649) and Dialogue between Christianity and China, Sankt Augustin: The Fondazione Civiltà Bresciana, Brescia & the Monument Serica Institute, 455-478.
- Chen, M., 1994, Ferdinand Verbiest and the geographical works by Jesuits in Chinese 1584-1674, in Witek, J.W., ed., Ferdinand Verbiest (1623-1688): Jesuit Missionary, Scientist, Engineer and Diplomat, Monumenta Serica Monograph Series 30, Institut Monumenta Serica and Ferdinand Verbiest Foundation, 123-133.
- Colpo, M., 1997, Giulio Aleni's cultural and religious background, in Lippiello, T. and Malek, R., eds., “Scholar from the West”: Giulio Aleni S.J. (1582-1649) and Dialogue between Christianity and China, Sankt Augustin: The Fondazione Civiltà Bresciana, Brescia & the Monument Serica Institute, 73-83.
- Corradini, P., 1997, Christian presence in China up to the time of Aleni, in Lippiello, T. and Malek, R., eds., “Scholar from the West”: Giulio Aleni S.J. (1582-1649) and Dialogue between Christianity and China, Sankt Augustin: The Fondazione Civiltà Bresciana, Brescia & the Monument Serica Institute, 29-48.
- Criveller, G. (柯毅霖), 1997, Preaching Christ in Late Ming China: The Jesuits' Presentation of Christ from Matteo Ricci to Giulio Aleni, Taipei: Taipei Ricci Institute.
- Elman, B.A., 2005, On Their Own Terms: Science in China 1550-190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Foss, T.N., 1988, A western interpretation of China: Jesuit cartography, in Peterson, W.J., Ronan, C.E., and Oh, B.B.C., eds., East Meet West: The Jesuits in China, 1582-1773, Chicago: Loyola University Press, 209-235.
- Lazzarotto, A.S., 1997, The Brescia Symposium on

- Giulio Aleni, in Lippiello, T. and Malek, R., eds., “*Scholar from the West*”: *Giulio Aleni S.J. (1582~1649) and Dialogue between Christianity and China*, Sankt Augustin: The Fondazione Civiltà Bresciana, Brescia & the Monument Serica Institute, 5-16.
- Lippiello, T. and Malek, R., eds., 1997, “*Scholar from the West*”: *Giulio Aleni S.J. (1582~1649) and Dialogue between Christianity and China*, Sankt Augustin: The Fondazione Civiltà Bresciana, Brescia & the Monument Serica Institute.
- Luk, B.H. (陸鴻基), 1977a, A study of Giulio Aleni’s Chih-fang Wai Chi (職方外記),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40(1), 58-84.
- Luk, B.H. (陸鴻基), 1977b, Thus the Twain did Meet? The Two World of Giulio Aleni,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Smith, R.J., 1996, *Chinese Maps (Images of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Uhalley, S. and Wu, X., 2000, *China and Christianity: Burdened Past, Hopeful Future*. Armonk, NY: M.E. Sharpe.
- Xu, M., 1997, Aleni’s writings on Matteo Ricci and on the Chinese converts Yang Tingyun and Michael Zhang, in Lippiello, T. and Malek, R., eds., “*Scholar from the West*”: *Giulio Aleni S.J. (1582~1649) and Dialogue between Christianity and China*, Sankt Augustin: The Fondazione Civiltà Bresciana, Brescia & the Monument Serica Institute, 375-401.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소장 세계지도 읽기”(http://kyudb.snu.ac.kr/contents/content_detail.do ?code=C00013&a_code=A03&b_code=&c_code=&num=13, 2017년 11월 2일 최종 접속)
- Martayan Lan, “The First Western “Atlas” Printed in China” (http://martayanlan.com/Aleni_Chinese_Atlas.htm, 2017년 11월 2일 최종 접속)
- 교신 : 서태열,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tyseo@korea.ac.kr)
- Correspondence : Tae-Yeol Seo, 02841, 145 Anam-ro, Seongbuk-gu, Seoul,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Email: tyseo@korea.ac.kr)
- 투 고 일: 2017년 11월 2일
- 심사완료일: 2017년 11월 22일
- 투고확정일: 2017년 11월 30일